

是動 所生考

國立醫療院 韓方診療部 申容澈 成宇鏞 姜錫均

ABSTRACT

A STUDY OF SI-DONG AND SO-SENG DISEASES

Yong Cheol shin, O.M.D., Woo Yong Seong, O.M.D., Sok kyun kang, O.M.D.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national center, seoul, korea

studying on si-dong and so-seng diseases recorded in lyeong-chu, kyeong-maek, the authors take out the results as follows.

1. si-dong diseases are caused by chang-fu organs(臟腑) itself and separately concerned with chin(津) hyeol(血), ki(氣), ek(液) keun(筋), kol(骨).
2. so-seng diseases are caused by invasions of six climatic conditions in excess as pathogenic factors(六淫) on the meridiain and collaterals.
3. si-dong diseases are mainly chronic and deficient syndromes.
4. so-seng diseases are mostly excessive and acute syndromes.

I. 緒論

《靈樞, 經脈》篇에서 十二經의 循行 經路를 詳述하고, 그에 基礎하여 每 經脈마다 病理的인 變化로써 약간의 症候들을 “是動”, “所生”으로 나누어 規律的으로 區分하였다.¹²⁾

이러한 分類가 가지는 意味는 일찍부터 크게 注目받아 왔으나, 그 文意가 古奧難解하므로 《難經》 이래로 술한 內經註解

家들의 註釋이 있어 왔으며 지금도 새로운 解釋이 試圖되고 있다.

이에 著者는 먼저 歷代 저가의 見解를 調査하고 아울러 각 病症을 分類하여, 이를 考察하여, 이를 考察함으로써 새로운 知見을 얻고자 하였다.

II. 本論

1. 歷代 註家들의 論述

奏은 邪가 氣에 있을때 “是動”이 되고, 血에 있을 때 “所生”이 되는데, 氣는 薰蒸하고 血은 滋養하므로 먼저 氣機의 運行이 막힘으로써 “是動” 病이 생기고, 다음에 그로 인하여 血이 凝滯되어 “所生” 病이 나타난다고 하여, “是動”과 “所生”에 先後의 次序가 있음을 말하였다.

丁, 虞, 楊, 葉, 등은 대체로 奏의 見解를 따랐으며, 약간씩 부연하였을 뿐이다. 張, 등은 氣血에 營衛의 概念을 導入하여 說明하였으며, 滑은 是動, 所生의 先後次序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였다.

徐는 內經原旨가 “是動”은 本經病이며, “所生病”은 自經의 病이 다른 經絡에 영향을 주어 생긴 病候를 말한 것이라 하고, 氣, 血로 이를 나눔은 역설이라고 하였다.

馬와 張은 內經原文에서 六腑經脈의 경우 所生病의 原因을 津液, 液, 血, 氣, 筋, 骨로 다르게 記述하였으므로, 所生病은 血의 異常이라고 한 見解는 잘못된 것이며, “是動” “所生”의 病候를 나누어 解釋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은 是動의 意味를 理解하는데 差異를 보였는데 특히 馬는 “是動”

을 “그 臟腑 經脈중의 血이 움직이는 것으로 病을 알아 낸다”고 보았으며, 張은 “是動”의 動을 “平常에서 바뀌어 病이 된다”라고 보았다.

張은 “是動”을 外因으로 일어나는 病狀이라 하고, “所生病”은 內因으로 발생하는 病狀이라 하여, 內傷과 外感으로 나누었다.

近代의 鄭卓人, 陳璧疏는 “是動病”을 本經脈이 外邪로 因하여 引動되어 發生하는 疾病으로, “所生病”을 그 經脈과 서로 連屬된 臟腑에서 발생하는 疾病으로 보아 “是動”, “所生”을 臟腑와 經絡으로 나누었다.

楊, 郭은 “是動病”을 經氣를 따라 發生하는 病理變化라고 하고, “所生病”을 經穴이 主治하는 病證을 따라 말한 것이라 하여 強分할 수 없다고 하였다.

石은 “是動”, “所生”을 마땅히 病因, 病位, 發病緩急, 病程長短, 標本, 虛實, 豫後轉歸 등의 여러 內容을 包括한 全面的인 概念으로 理解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具體的인 內容은 다음 表 1과 같다.

2. “是動”, “所生病”의 病證分析

표 1. 是動, 所生病 分析簡表(石學敏設)

分類項目	是動病	所生病
病因	多爲 外因引 動或誘發	(1) 是動未愈轉化而來 (2) 臟腑自病
病程	發病急, 病程短	發病緩慢, 病程長久
病位	多 在外, 在表	多爲裏證
正氣與 邪氣消長	正氣 一般不虛 多爲正盛邪實	多爲損傷正氣而正虛邪盛, 邪滅正衰
性質	多爲陽熱實證	多爲裏虛寒證
轉歸	可因邪氣盛或正氣虛而入裏, 損及臟腑轉爲所生病	有時是爲 是動病的加重
豫候	多爲良好	多爲不良

(1) “是動病” 分析

① 三陰經 分析

a. 肺經

咳嗽, 喘息은 肺經證의 代表的인 症狀으로서 外感, 內傷에 있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缺盆中痛은 역시 肺의 氣機가 不暢하여 일어나는 症狀이므로 特別한 意義는 들 수 없다. “甚하면 交兩手而瞽” 한 것은 그 症狀이 經絡를 따라 末端部로 퍼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b. 心經

心痛은 《靈樞, 厥病篇》의 “真心痛”, “厥心痛”이나 《金匱要略》의 “胸痺”로 볼 수 있으며, 噎乾, 喝而不飲은 心陰이 虛하여 나타나는 病狀으로, 心肺 自體의 病變을 概述한 것으로 본다.

c. 腎經

“飢不飲食, 面如漆柴, 咳唾則有血, ……心如懸若飢狀의 症狀은 腎精이 虧虛한 것이 오래되어 일어난 症狀으로서 肺癆의 末期症狀과 같으며, 下焦의 症狀도 考慮할 수 있는 部分이 있다.

d. 脾經

脾는 運化를 主하므로 그 機能이 弱화되면 “食則嘔, 胃脘痛, 腹脹, 善噫”한다. 또한 “脾病不能爲胃行其津液”하므로 身體皆重해 진다.

e. 心包經

“心中憺憺大動”은 水氣凌心하여 心陽을 阻塞한 것으로 “手心熱, 臂肘掣急”은 그 症狀의 가벼운 表現이다.

g. 肝經

“腰痛不可以俛仰”은 肝主筋의 機能이 弱화되어 나타나는 症狀이며, 舉丸과 小

腹은 肝의 部位이므로 肝의 疏泄機能의 弱화가 드러난다.

② 三陽經 分析

a. 太陽經

“齒痛”의 病因의 하나로 太陽의 熱로 말미암아 津이 虛하여 진 것을 考慮할 수 있다. “頸腫”은 甲狀腺 疾患으로 보여진다.

b. 胃經

酒酒振寒, 獨閉戶塞牖而處는 胃虛寒者에게서 볼 수 있는 症狀이며, 欲上高而歌, 棄衣而走는 胃熱로 因한 症狀이다. 善呻數欠은 胃脘食滯의 症狀이며, 惕然而驚, 心欲動은 그 原因을 血虛로 볼 수 있다.

c. 小腸經

噎痛, 頷腫은 液의 不足으로 생긴 病候이며 不可以顧, 肩似拔 臑似折은 頸樞性疾患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小腸機能의 不調로 液의 生成이 未及하여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 膀胱經

腰似折, 髀不可以曲, 臑如結, 臑如裂은 坐骨神經痛의 症狀이며, 項似拔, 脊痛, 衝頭痛, 目似脫 등과 마찬가지로 膀胱氣化機能의 阻滯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e. 三焦經

三焦는 氣의 分布를 具象化한 器官이므로 耳聾, 噎腫, 喉痺로 氣의 阻塞으로 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 膽經

口苦, 善太息, 心脇痛不能轉側은 鬱結된 精志로 因하여 氣가 鬱滯되어 痰이 생기고 이 痰熱이 內擾함으로써 痰의 疏泄

機能이 失調되어 일어난다.

(2) 所生病 分析

① 三陰經 分析

a. 肺經

欬, 上氣, 喘, 渴, 燔心, 胸滿은 肺經의 是動病과 比較해 볼 때 病程이 急하며 正氣가 充實한 경우의 外感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臑臂內前廉病, 厥掌中熱은 肺經이 지나가는 分野에 發한 異常狀態로 三陰, 三陽의 所生病 部分에 共通되게 그 經絡의 流注 部位에 關한 病證이 記述되어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b. 脾經

外濕은 脾土에 가장 影響을 미치므로, 溏瘕泄, 黃疸, 水閉, 心下急痛, 食不下, 體不能動搖등은 모두 脾經이 外濕에 感受하여 생긴 症狀으로 볼 수 있다.

c. 心經

少陰脈이 目系와 連系되어 있으며, 腋下로 出하므로 少陰經이 外邪를 받으면 目黃, 脇痛한다.

d. 腎經

口熱, 舌乾, 咽腫, 上氣, 噎乾急痛, 燔心, 心痛은 足少陰의 脈이 喉嚨을 循하고, 挾舌本하며, 그 支脈이 肺를 따라 心에 絡하기 때문이며, 이는 外感으로 因한 症狀이다.

e. 心主經

燔心, 心痛은 心包經이 起出하는 處이 胸中이므로 心包脈의 異常으로 나타나는 症狀으로 본다.

g. 肝經

本經은 上行者가 挾胃貫膈하며, 下行者가 過陰器, 抵小腹하므로 肝經이 外邪의

侵襲을 받으면 胸滿, 嘔逆, 飧泄, 狐疝, 遺尿, 閉癰과 같은 異常이 생긴다.

② 三陽經 分析

a. 太陽經

目黃, 口乾, 欬衄, 喉痺 등은 陽明燥金의 氣가 太陽經에 作用하여 傷津하므로 생긴 症候이다.

b. 胃經

陽明의 熱이 盛하면 狂, 風이 盛하면 癡한다. 溫淫은 高熱이며, 唇唇은 口唇周圍가 發疹하는 것으로 다 外感에서 비롯된다.

c. 小腸經

耳聾, 目黃, 頰腫은 少陽經脈이 지나가는 處에서 생긴 病變이다.

d. 膀胱經

痔, 癰, 狂 등의 諸證은 이 경우에서는 膀胱經이 太陽寒水의 氣運을 받아서 克服하지 못하여 생긴 徵候로 본다.

e. 三焦經

汗出은 三焦經脈이 少陽相火의 氣運으로 傷하여 衛氣가 虛하여 나타나는 症狀이다.

f. 膽經

汗出, 振寒, 癰 등은 傷寒論의 少陽症候로써 모두 外感이 轉變하거나, 直中한 것이다.

III. 考察

1. 諸註家說

歷代 諸家の 說은 대체로 다음 6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① 是動, 所生 氣血 分類說

a. 先後次序 確然說

b. 先後次序 混沌說

② 是動, 所生 不可分離說

③ 是動, 所生 外感, 內傷說

④ 是動, 所生 本經, 旁及他經說

⑤ 是動, 所生 本經發病, 本經俞血所主

治病說

⑥ 石學敏說

2. 是動, 所生 病證 考察

《內經》에 十二經脈은 “內屬於臟腑하며 外絡於肢節”하여, 行氣血, 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者로서 “人之所以生, 病之所以成, 人之所以治, 病之所以起”라 “所以能決死生, 處百病, 調虛實” 하므로 “治以鍼艾, 各調其經氣”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觀點에서 經脈篇의 是動, 所生病의 病證을 考察하였다.

① 病因

a. 是動病

本論의 分析으로 보아 三陰經의 경우와 三陽經의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肺, 脾, 心, 腎, 心包, 肝經의 三陰經은 是動病이 각각 그 해당 장기의 機能異常으로 招來된 病候를 나타내며 經絡은 그 異常을 體表로 傳達하는 作用을 한다.

六腑經脈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그 機能의 異常이 津(大腸), 血(胃), 液(小腸), 筋(膀胱), 氣(三焦), 骨(膽)의 變化를 招來하여 그 結果로 是動病의 症狀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37년 長沙 馬王堆 三號 漢墓中에서 出土된 《帛書》의 하나인 《陰陽 十一脈灸經》에서

是動病을 說明할 때 그 末尾에 是……主治라고 하고 다시 其所散病이라고 하여 所生病을 羅列한 것을 參考하고 다시 歷代 諸家들이 是主(…)所生病이라고 解釋한 것과 比較하여 考察할 때 自明해 진다고 본다.

b. 所生病

韓醫學에서 病因을 認識하는 方法에 關한 學說은 많지만, 대체로 “自然因素”, “生活因素”, “情志因素”, “體質因素”, “內生因素”, “其他因素”로 나눌 수 있다.

所生病은 “自然因素”가 經絡을 통해 體內에 影響을 미치는 過程에서, 正氣의 虛弱(正氣虛)이나 지나친 六淫(邪氣實)으로 나타나는 症候이다. 肺經에서 “氣有餘則當脈所過者熱腫, 虛則寒慄不復”이라 하고, 大腸經에서 “氣有餘則 肩背痛風寒 汗出中風小便數而欠, 氣虛則 肩背痛寒小氣不足以息溺色變”이라 하며, 胃經에서 “氣盛則 身以前皆熱, 氣不足則身以前皆寒”이라 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② 病程, 病位, 虛實, 性質, 豫後

是動病은 本臟 自體의 病이며 病巢가 內部에 있고, 대개 機能의 低下로 因한 虛寒證이며, 慢性病이므로 그 豫後가 나쁘다.

心經의 是動病은 現代醫學에서 말하는 각종 心臟病과 類似하여 그外 腎經의 癆瘵나 下焦의 경우가 그 例로써 이로 미루어 볼때 肺經의 是動病도 慢性이며 重證인 경우라고 보인다.

所生病은 經脈의 病이며 대체로 病變이 體表로 나타나며 外感으로 인한 實證이 많고, 急性病이며, 豫後가 良好하다.

表 2. 본고의 是動, 所生病 分析 表

分 類	是 動	病 所 生 病
病 用	臟腑 自病 六腑의 경우 津(六腸), 血(胃), 液(小腸), 筋(膀胱), 氣(三焦), 骨(膽)의 病理와 有關	六淫
病 程	發病緩慢, 病程長久	發病急, 病程短
病 位	在表	在裏
正邪消長	正氣虛	邪氣實
性 質	虛寒	實熱
豫 後	不良	良好

IV. 結 論

《靈樞, 經脈》篇의 是動, 所生病을 考察하여 다음의 結論을 얻었다.

1. 是動病은 臟腑本病이며, 三陽經에서는 각각, 津(液), 血, 氣, 液, 筋, 骨의 病理와 有關하다.

2. 所生病은 六淫이 經脈에 侵襲하여 생긴다.

3. 是動病은 대체로 慢性病이며, 實證의 경우가 많고 豫後가 良好하다.

參 考 文 獻

1. 郭靄春 편,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p. 104
2. 滕萬卿, 難經古裁(難經本義附錄), 放風出版社, 民國六十六年.
3. 徐靈胎, 徐靈胎醫書十六種, 上海, 錦文堂, 民國24년, 難經註譯, p. 7.
4. 葉子雨, 難經正義(珍本醫書集成 第一冊中), 世界書局 民國 50年, pp. 39-40.
5. 宋鷺冰 主編, 中醫病因病機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p. 78-83.
6. 揚甲三 主編, 鍼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 37-66.
7. 張介賓, 類經, 서울, 書苑堂, 1977, pp. 284-285.
8. 張隱庵, 馬元臺 合註, 黃帝內經靈樞素問 合編, 台聯, 國風出版社, 靈樞, pp. 74-77.

9. 泰越人 述 張世賢 注 難經脈訣, 上海廣益書局, 校正圖註八十一難經, 卷二, p. 3.
10. 泰越人 撰 王九思等集注, 難經集注, 台灣中華書局, 中華民國, 六十六年, 卷三, pp. 3-5.
11. 天津中醫學院 第一附屬醫院, 鍼灸科, 石學敏鍼灸臨證集驗,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0, pp. 497-502.
12. 洪元植 編, 王冰註 黃帝內經, 서울, 高文社, 1971, pp. 306-310.
13. 滑壽, 難經本義, 旅風出版社, 中華民國, 六十年, p. 27.